

# “망치가 목탁... 망상들면 돌에 상처”

## 신문박의 硯

### 돌 하르방 명장 장공익 씨

“제주도를 찾는 신혼부부들은 돌 하르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에 따라 하르방의 큼직한 코를 만지곤 합니다. 아들을 낳고자 ‘돌 미륵’의 코를 갈아마셨던 옛사람들이나 돌 하르방의 코를 만지는 현대의 젊은이들은 돌에서 무엇을 접했다고 생각합니까?”

석암 장공익(石岩 張公益, 65), 제주를 상징하는 돌 하르방 제작의 1인자(명장 93-16호)인 장씨가 의문 하나를 던져놓고 말을 이어간다.

“하르방은 제주를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부처님 땅을 지키는 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어야 해요. 혼이 깃들어야 있지 않습니까? 돌 하르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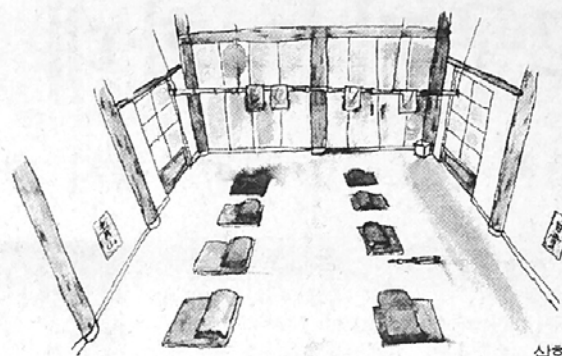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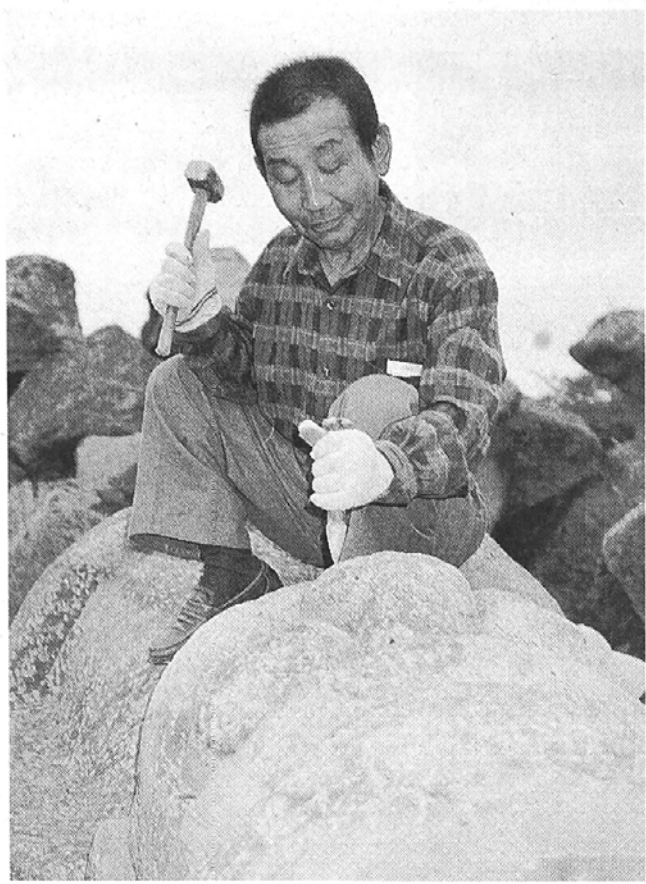
머리엔 두툼한 빗거지를 쓰고 부리부리하게 쳐다보는 눈, 굳게 닫은 입, 가우뚱한 얼굴에 머금은 야릇한 미소, 전체적으로 강직하면서도 어리숙해 보여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만 같은 돌 하르방.

을 좋아한다. 작지만 표정 하나하나에 옛 서민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지역마다 돌 하르방의 형태가 다르다는 분석만으로는 장씨가 말하는 돌속에 스며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감이 안온다.

장씨의 형제는 12명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형제는 모두가 일찍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다.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법당을 조성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생명줄을 이어온 장씨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느끼며 살아왔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정녕 나의 생명을 부처님이 연장해 주는 것인가? 어린시절 장씨는 한시도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달리 손재주가 있었던 장씨는 재질이 약한 제주의 돌에 부처님을 새기고 향로를 새겼다. 부처님의 가피로 생명이 연장된다면 혼신을 다해 불상을 조성하고 더 많은 이에게 전하고자 했



실화·이기선

## 마음 내돌리지 말고 새롭게 入道

스님은 어디서 한철 내셨습니까. 아니 스님은 어느 절에서 안거(安居)를 하였습니까. 여기서 한철이란 말과 안거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철이라고 하면 여름 한철 겨울 한철, 이 두 절 동안 사찰의 선방에서 외부에 출입하지 않고 참선에 집중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한철 낫다고 하면 선방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교단의 수행법은 특이한데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두차례 수행하는 기간이 있다. 4월에 시작하는 수행기간을 여름안거라고 하고, 10월에 하는 것을 겨울안거라고 한다. 공부하러 가는 기간, 즉 공부하는 기간을 결제(結制)라고도 한다.

스님들은 누구를 있는 자리에서 안거에 들자 마흔하고 제정된 계율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고 따로 제정된 틀을 벗어나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거동안 결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더욱더 제약적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결제기간 동안은 용상방(龍象房)을 잔다. 기구조식을 만드는 것이다. 선방대중이 함께 모여 조식, 선적 유나를 비롯하여 주지, 화주, 도감 등 한철 날 수 있도록 각자 소임을 맡는 것이다. 이 소임의 직책을 조직하는 것을 용상매, 또는 육색방이라고 한다.

### 철저한 규칙따라 생활

선방 생활은 철저한 규칙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물이 조용히 흘러가듯, 작은 시내, 큰 개울, 강물이 궁극에는 큰 바다에 흘러들어가 한 맛이 되듯이 그 물들은 작은 시내

이런지 큰 개울이던지 넓은 강물이던지 한사코 제 본분을 다하면서 조용히 흘러가야 한다. 제 갈길을 벗어나면 그 물들은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물은 흘러가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꾸준히 천천히 쉬지 않고 흘러 흘러가야 한다.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절로 번뇌가 하나둘 일어나게 되어 선방에 들어앉아 화두잡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 스님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것은 몸의 주행(走行)을 제지하는 것으로 틀리지만 그 속뜻은 마음을 밖으로 내돌리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다.

수행자는 폐관(閉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밖에서도 자물쇠를 잠고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붙여야 한다. 안팎으로 열려 있는 경계에 삼면 일심정행이 되지 않는다. 무문관(無門關)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모퉁이도 나갈 수 없는 선방에서 부동의 자세로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대야만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무엇을 참복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되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결제 기간동안 한번 앉아 보아야 한다. 우리 한국의 모든 스님들이 한 석달동안 침묵의 자리에 앉아 바람 같은 호흡을 정일하게 침잠시키고 있다면 하늘과 산천초목도 침묵할 것이다. 세상이 시끄럽고 분탕거리는 것은 들뜬 마음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사부대중이 세상이 만물사중 다 놓아버리고 해인암의 수정(修行)의 세계에 들어버린다면 한철동안 자연도 세상도 침묵할 것이다. 침묵은 모든 것을 가리얏고 본래 면목을 발현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참선정행이 있는데 어디서 빌붙고 있는가.

결제안거, 이것은 불교가 가장 소중하게 내어보인 수행의 길이다. 우리 모두 결제의 한 철을 수습하는 불자가 되자. 4월에 시작하는 결제에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성철스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물줄기가 여거지기 돌아다니면 망상의 대상과 접상(接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상의 횡수가 많으면 그곳에 안착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사실 안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망상과 함께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27

결제(結制)

## “돌 하르방은 고통받는 이들의 미륵불이죠”

### 돌장이 40년... 혼 불어넣기 ‘평생작업’ 발원

제주의 돌 하르방은 고을에 들어선다는 이정표 역할과 고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호열자 같은 약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주술적 성격을 띄고 있다.

### 마을지키는 수호신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신비에 싸여 있는 돌 하르방은 현재 제주시와 성읍, 모슬포에 45개가 남아 있다.

“제주시의 것은 목사가 살던 곳이어서인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성읍은 군수가 살던 곳이어서 크기가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모슬포는 더 작은 고을로 생김새가 투박하고 미려해 보입니다. 특히 모슬포의 돌 하르방은 한쪽 손이 치마를 가린 듯해 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장씨는 세련된 제주시의 돌 하르방보다 성읍과 모슬포의 하르방

가 좋아한다. 작지만 표정 하나하나에 옛 서민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지역마다 돌 하르방의 형태가 다르다는 분석만으로는 장씨가 말하는 돌속에 스며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감이 안온다.

장씨의 형제는 12명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형제는 모두가 일찍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다.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법당을 조성하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생명줄을 이어온 장씨는 생명에 대한 경외를 느끼며 살아왔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정녕 나의 생명을 부처님이 연장해 주는 것인가? 어린시절 장씨는 한시도 이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달리 손재주가 있었던 장씨는 재질이 약한 제주의 돌에 부처님을 새기고 향로를 새겼다. 부처님의 가피로 생명이 연장된다면 혼신을 다해 불상을 조성하고 더 많은 이에게 전하고자 했

받으면 법당 부처님전에서, 낮에는 작업장에서 일념으로 돌 하르방을 조성했다.

장씨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먼저 법당을 조성하고 작업장을 마련했다. 현재 살고 있는 제주 한림의 작업장에도 석굴암이란 안자를 창건했다. 장씨가 기거하는 숙소는 법당옆에 달린 작은 방이다.

### 양자세워 포교 앞장

근래에는 인근 지역에서 신도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아 장씨가 포교사를 겸하고 있다. 신도가 1백60여 세대이고 보니 시골 양자치고는 꽤나 알찬 법당이

“저는 법당에 들어서면 목탁을 치고 작업장에서는 망치를 잡습니다. 망치가 곧 목탁이지요. 망치질을 할 때마다 열 불을 합니다. 그래야 잡념이 생기지 않

고 정물로 균일하게 돌을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상이 들면 망치가 힘의 균형을 잃어 돌을 내리치게 됩니다. 여인네가 얼굴에 분칠하듯 다듬겨 리지 못하고 상처를 내고 말지요.”

장씨는 예전의 돌 하르방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고 한다. 더도 덜도 않고 망치질이 적당하게 되어있는 돌 하르방은 신의 작품처럼 찬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씨는 돌 하르방을 만들었던 선인들이 제주고을의 목사나 군수보다도 더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많이도 만들었습니다. 큰것 작은것 합치면 20만개가 넘을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있게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 쉽게 보이지만 하르방에 혼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살아생전에 한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한림=이준엽 기자

# 대흥사 여름수련회 수련생 모집

# 4박 5일 대흥사 여름수련회 를 엽니다. 일상의 틀을 벗고 금부처님 모셔내어 빛바다에 떠감는 환희로운 이 법석에 동참할 수련생과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우측과 같은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 1차는 6월 20일까지, 2·3차는 6월 26일까지 우편 및 팩스로 보내십시오.(FAX 접수자는 필히 전화 확인 요망)
- \* 기재사항 부실한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 \* 1차는 6월 24일까지, 2·3차는 6월 30일까지 동참 가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 동참이 확정된 후 동참이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 \* 준비물:1. 필기구 2. 세면도구 3. 침구 4. 손전등 5. 동참금 4만원(자원봉사자는 없음, 교재대 포함)
- \* 문의처:총무소 전화:0634-34-5502, 5503 팩스:0634-35-5357

### 교통편

서울에서 고속버스편:강남터미널 호남선-해남(5시간 30분 소요)  
5회:7:55/9:30/11:00/14:10/16:00/17:55  
비행기 편:서울-목포(50분 소요) / 목포-해남(1시간 소요)  
광주에서 직행버스편:해남(1시간 40분 소요) 20분 간격  
해남-대흥사:버스 25분 / 택시 15분

Foreigners are requested to contact Jisu Sunim for detail.  
TEL.0634-34-5502, FAX.0634-35-5357

### 일정표

차 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일	대 상
1차	7월 2일(일) ~ 6일(목)	30명	6월 20일	19세 ~ 50세
2차	7월 9일(일) ~ 13일(목)	30명	6월 26일	19세 ~ 50세
3차	7월 16일(일) ~ 20일(목)	30명	6월 26일	19세 ~ 50세

### 신청서 양식

1. 이름: 한글	한자	불명	성별: 남 여
2. 주소			
3. 주민등록번호:		4. 전화 및 팩스:	
5. 직업:		6. 종교:	
7. 희망기간: 제		차	
8. 참가 소견:			

### 보낼 곳

년 월 일 위 신정인: 인  
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장춘동  
대흥사 수련회 담당자 귀하